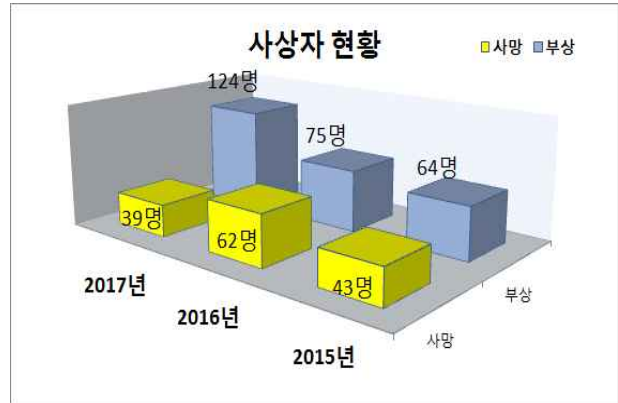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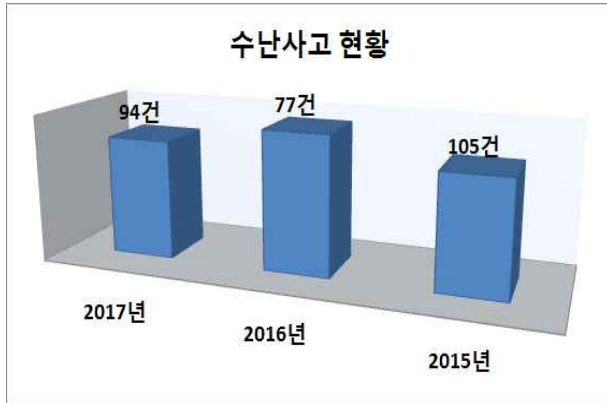


6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

여름철 수난사고 안전 주의보 !

□ 수난사고 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15~'17년)간 발생한 전체 수난 사고는 252건 발생하였으며, 사상자는 407명으로 사망 144명, 부상 57명, 안전구조 206명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고원인을 보면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101건(사망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35건(사망 23명), 다슬기 채취(어류 포획) 26건(사망 20명), 급류 14건(사망 7명), 파도 휩쓸림 17건(사망 8명), 고립이나 음주 25건(사망 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시도나 사체인양도 22건(사망 21명)에 달했다
- 사고 장소별로 분석하면 강에 발생한 경우가 89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해수욕장 41건, 하천 40건, 계곡 33건, 기타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는 산과 계곡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청정지역으로 매년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지만 물놀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6~7월중 수난사고 현황 분석 (최근 3년)

□ 수난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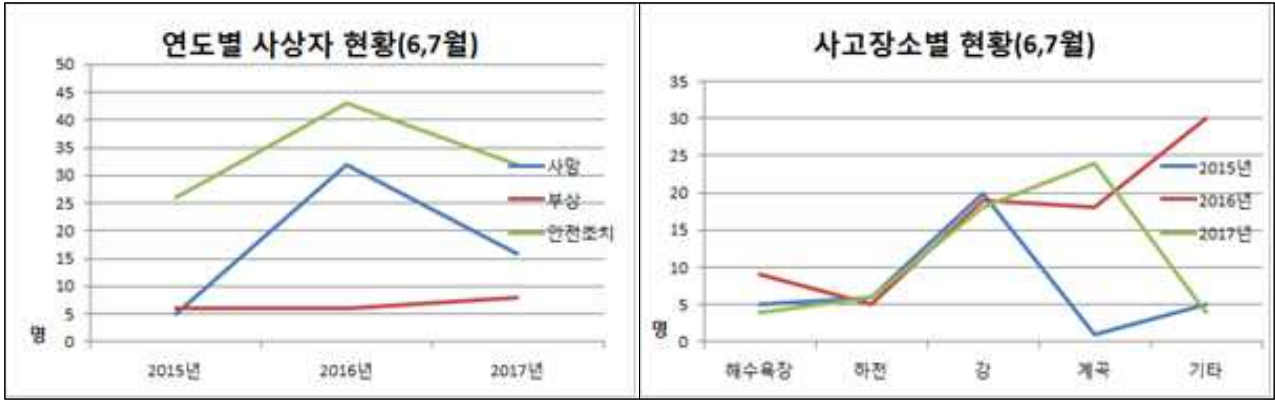
연도별	건수	구조인원(명)			
		계	사망	부상	안전조치
계	96	174	53	20	101
2016	30	56	16	8	32
2015	45	81	32	6	43
2014	21	37	5	6	26

- 최근 3년간(15~17년) 6월~7월중 수난사고는 96건에 174명(사망 53, 부상20, 안전조치101)으로 전체 구조인원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부터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면서 수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해 지고 있다.
- 17년에는 사망자가 16명으로 15년과 16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16년에는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의한 사고와 다슬기 채취 사고 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 주요장소별 분석

연도별	건수	장소별 사상자 현황					
		계(명)	해수욕장	하천	강	계곡	기타
계	96	174	18	17	57	43	39
2016	30	56	4	6	18	24	4
2015	45	81	9	5	19	18	30
2014	21	37	5	6	20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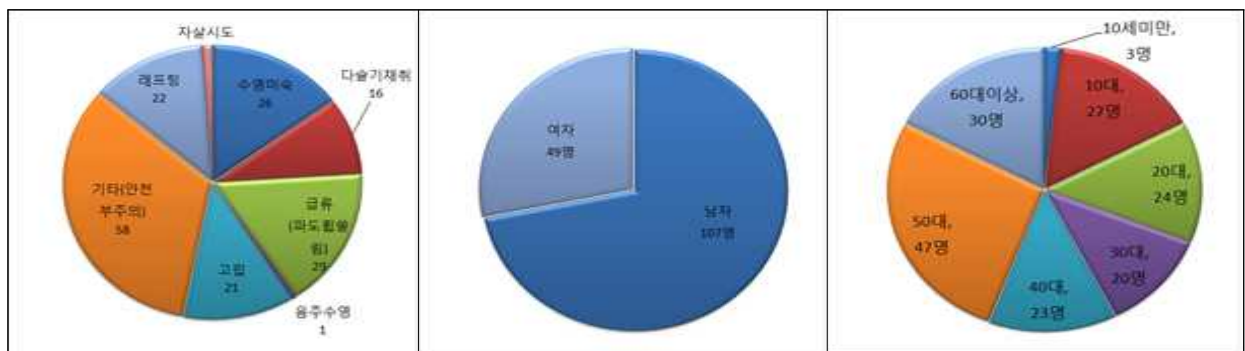
- 주로 물놀이가 많은 강에서 수난사고로 57명(32.8%)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계곡 43명(24.7%), 해수욕장 18명(10.3%), 하천 17명(9.8%), 기타 등으로 나타남. 강원도는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이 많아 외지 방문객에 의한 사고가 주된 사고 대상임.



□ 사고원인 및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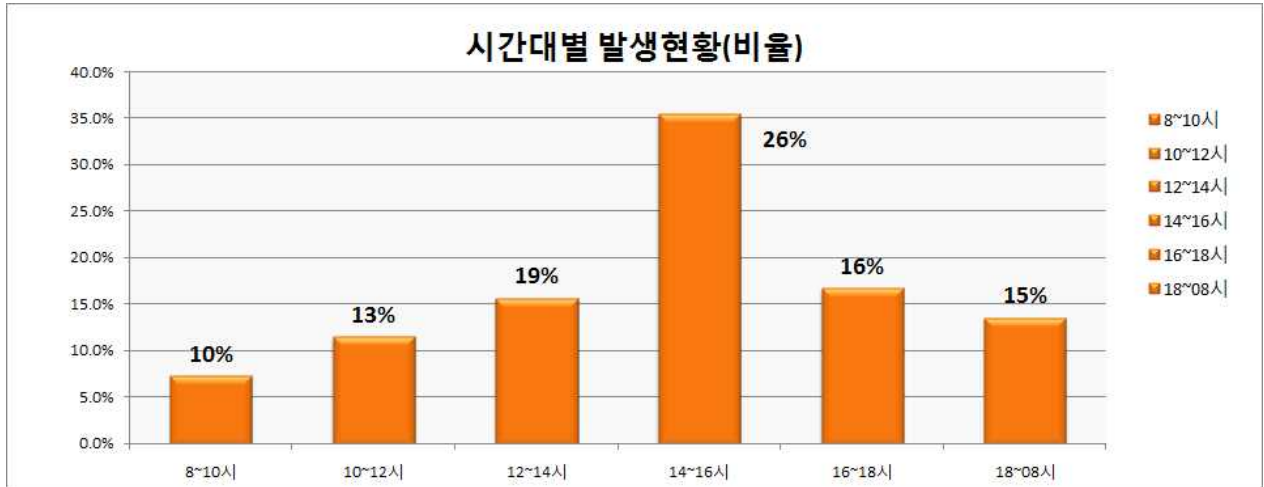
- 사고원인에 따른 인명피해 분포는 전체 174명 중 안전부주의 58명 (33.3%), 다음으로 급류나 파도 휩쓸림 29명(16.7%), 수영미숙 26명(14.9%), 래프팅 22명(12.6%), 다슬기나 어류수렵 16명(9.2%) 순임.
- 연령대별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27%(47명), 60대 이상 17.2%(30명), 10대 15.5%(27명), 20대 13.8%(24명) 순이었으며, 10대는 학생들이 단체로 물놀이를 하다 수영미숙이나 안전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성별로는 남성이 71.8%(125명), 여성이 28.2%(49명)이었음.



□ 지역별 및 시간대별 분석

- 시간대별 발생건수는 14~16시 35.4%(34건), 16~18시 16.7%(16건), 12~14시 15.6%(15건), 10~12시 11.5%(11건) 등의 순으로 오후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지역별로는 인제가 33건(19%), 속초 21건(12.1%), 홍천 20건(11.5%), 삼척 17건(9.8%), 철원 16건(9.2%) 등의 순이었음.



- 올해에도 주요 물놀이 사고·위험지역 119구조대·구급대 전진배치 및 시민수상구조대 등 안전요원의 지도 및 적극적인 홍보에 의한 경각심 고취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임.

붙임 2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려온 후 무릎 정도의 얇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한다.
-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가지 않는다.
※ 숨을 마신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러 빠져 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뿜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가 쉽다.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흥내를 내지 않는다.
 -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어린이 물놀이 활동시 유의사항

-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의 튜브나 보행기 등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
- 보호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뺀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대처요령

- 체력소모가 적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한다.(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소모가 발생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들이마시고 중지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 거센 파도에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수초에 감겼을 때 대처요령

-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놀라서 발버둥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온다.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대처요령

- 경련은 물이 차거나 근육이 피로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쉽고, 수영 중 흔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물을 건널 때 대처요령

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는

-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급적 바닥을 끌듯이 이동하고, 시선은 건너편 강변 독을 바라보고 건너야 한다.
-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서 간다.
-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지팡이를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무릎 이상의 급류를 건널 때는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넌다.
- 로프는 수면위로 설치한다. 로프가 없을 경우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요령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침수·고립되었을 때 대처요령

침수지역에서의 행동은

-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중앙지점을 이용하고 가급적 침수 반대 방향이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고립지역에서의 행동은

-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가한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한다(옷이나 화염을 이용)
- 가능하다면 라디오나 방송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보트를 탈 때 대처요령

- 보트를 탈 때에는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킨 상태에서 선미 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용골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
- 배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
- 보트에서 내릴 때는 탈 때와 반대로 하고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 한 후 선미 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

- 모든 승선자는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 대처요령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